

‘문병란 문학제’ 24일 개최... 민족사랑 기린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해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틔는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발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뺏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중략)

인생향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고비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문병란 '희망가 중에서')



추모행사 문학제로 개편

시낭송·시극·공연 열어

문병란 작가상에 허영만 시인

지난 겨울은 유독 추웠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않듯 추위가 맹위를 떨칠수록 봄이 멀지 않다는 말은 진리 중에 진리다. 그렇게 어느 결에 봄은 우리 곁에 와 있다.

문병란 시인(1935~2015)의 '희망가'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시인은 "눈 덮인 겨울의 발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뺏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고 노래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추위로 상징되는 절망은 언젠가 물러가고 반드시 희망이 온다는 사실이다. 이 땅의 가난

한 민초들과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늘 희망의 노래(시)를 멈추지 않았던 시인이 그리워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서은(瑞恩) 문병란 시인의 삶과 문학을 기리는 문병란 문학제가 열린다.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이사장 황일봉)는 오는 24일 4시 조선대학교 서석홀 대강당에서 '제1회 광주 동구 문병란 문학제'(이하 문병란 문학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병란 문학제는 지금까지의 추모 위주의 행사를 확대 개편해 문학제로 치러지는 첫 행사로, 고인의 민족사랑을 기억하고 평화의 노래(시)를 기억하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번 문학제에서는 제1회 문병란 작가상과 공모상 시상식이 치러질 예정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문학제에서는 사물놀이 공연, 시낭송, 초대가수 공연, 우쿠렐레 연주, 우리 춤,

시극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흥영숙 시인의 사회로 1부 행사에서는 황일봉 이사장의 개회사, 강춘기 문병란문학상 심의위원장·임원식 광주문인협회장·윤장현 광주시장·김성환 광주시동구청장·송일준광주문화방송사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제1회 문병란 작가상(상금 1000만원) 수상자인 허영만 시인과 공모상(상금 300만원) 수상자인 공옥동 시인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된다. 목포대 국문과 명예교수인 허 시인은 고인의 제자로 '월간문학'을 통해 등단했으며 '비 잡시 그친 뒤' 등 다수의 작품집을 펴냈다. 서은문학연구소 사무국장인 공 시인은 창작반 모임 회장을 맡아 고인의 뜻을 받들고 계승하는 데 기여를 했다.

제2부에서는 시낭송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김숙희 시인과 흥영숙 시인, 강숙자 시인이 각각 문병란 시 '인연서설', '불혹의 연가', '희망가'를 낭송한다. 또 반달문화원 박애정 씨의 우쿠렐레 연주('백만송이 장미' 외)로 문학제의 분위기를 돋운다.

이밖에 나르샤 공연단의 우리 춤 공연이 진행되며 이희옥 씨의 나레이션으로 시극 '강의 노래'(문병란 시)가 펼쳐진다. 양기준, 양동률, 강명숙, 전경숙 씨가 참여한다.

3부는 교제의 장소로 참가자들이 식사와 음료를 들며 고인의 뜻을 기릴 예정이다. 황일봉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 이사장은 "제1회 광주 문병란 문학제가 민족사랑과 평화통일을 지향했던 고인의 뜻을 받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러한 시 정신이 사회 각계로 확산돼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1985년 하춘화→2002년 YB→2005년 조용필



13년 만의 평양 공연 누가 갈까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화해 무드 속에 10여년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우리 예술단의 방북 공연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공연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사전 행사지만, 술한 화제를 낳은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지난달 방남 공연에 대한 답방 행사가기도 하다.

정부는 이 같은 행사 성격을 고려해 평양 공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초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실무회담에서 공연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공연은 대중음악과 클래식이 중심이 되는,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열린음악회'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남북 문화교류가 활발했던 과거 방북 공연 때도 이 같은 모습이 많이 연출됐다.

공연 내용을 살펴보면 정통 클래식이나 국악 위주의 공연도 있었으나, 대중음악에 클래식을 곁들이거나 대중음악에 국한된 공연이 더 많았다. 현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예술인도 김연아, 윤도현, 조용필 등 주로 대중가수였다.

1985년 첫 방북 공연 때부터 김정구, 김희갑, 하춘화 등 당시의 인기 가수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현대무용, 민

속무용, 민요합창, 가곡, 코미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2002년 KBS교향악단과 조선국립교향악단이 함께한 정통 클래식 무대가 한 차례 마련되기도 했으나, 나머지 공연들은 대중음악 위주로 꾸며졌다. 2002년 MBC 평양 특별공연에는 이마지, 최진희, 윤도현밴드, 테너 임웅근 등이 참여했다.

이번 공연도 과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대중음악과 클래식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공연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연 장소도 관심사다. 방북 공연이 가장 잦았던 곳은 평양 서성구역 외산동에 위치한 문화예술극장이다. 1998년 리틀엔젤스 공연을 비롯해 1999년 평화친선음악회와 민족통일음악회, 2002년 남북교향악 연주회 등이 여기서 열렸다.

이밖에 1990년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열린 6000석 규모의 4·25문화회관, 1998년 윤이상통일음악회가 열린 7000석 규모 모란봉극장 등이 있다.

남북 실무회담을 거쳐 결정될 이번 방북 공연의 내용과 공연단의 규모에 맞춰 공연장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AI의 질문’ 22일 강우성 교수 강연

(재)광주비엔날레는 2018년도 광주비엔날레 월례회 첫 번째 GB토크로 강우성 서울대 교수 공개 강연을 오는 22일 오후 7시 광주비엔날레 제 문헌 3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

이날 강연에서 강우성 서울대 영문과 교수는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된 오늘날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의 의미를 탐색할 예정이다.

강연은 '엑스 마키나'와 '언더 더 스킨' 등의 인공지능과 외계인을 다룬 영화를 사례로 인공지능에 정서적 특성을 부여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감성화' 경향 및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음미해본다.

사회는 2018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큐레이터인 이택광 경희대학교 교



강우성 교수

로발커뮤니케이션 학부 영미문화전공 교수가 맡는다.

강 교수는 학술지 '안과밖' 편집주간으로 활동했고, 미국 소설학회 회장, 한국비교문학

회 부회장, 영어영문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공저), '더 넓은 세계문학'(공저) 등이 있다.

강연 참석을 원하면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의 062-608-4233.

/김미은기자 mekim@

명인이 전하는 우리 소리의 세계

22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광주 서구가 오는 22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목요일연국악한마당 박봉선의 소릿길 인생과 임영일 명고의 고백 세계 '일정중 이고수 삼명창'을 개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소리는 김연수가 판소리의 미학에 입각해 가사를 정리하고 곡조를 다시 짜서 재창조한 동초제다. 이번 무대에서는 '수궁가'(소리 임영일), '고수 조가완', '춘향가'(소리 이선영, 고수 김준영), '춘향가'(박봉선, 고수 임영일)를 들려준다.

장흥 출신의 박봉선 명인은 15세부터 판소리를 시작해 박초월, 김윤덕, 김연수에게 사사하여 1962년에 국립창극단 1기생으로 활동했다. 전남대 국악과와 용인대 예술대학원을



임영일 명인

졸업한 임영일 명인은 광주시립국극단 상임단원, 전남도립국악단 사무장을 역임했으며 서울전국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등을 수상했다. 국가 지정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및 고

법 이수자며 (사)신안천사섬예술진흥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 대통령이 읽은 에세이 판매량 40배↑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사회운동가인 파커 J. 파머의 저서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글항아리·사진)을 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판 판매량이 급증했다.

알라딘은 최근 "파머가 문 대통령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을 읽었음을 페이스북으로 밝힌 직후 15일부터 이틀간 책 판매량이 전월 같은 기간 대비 40배가량 급증했다"고 밝혔다.

책은 2012년 출판사 글항아리를 통해 국내에 출간됐으며 저자가 '비통함'이라는 키워드로 풀어쓴 정치 에세



이다. 저자는 현실 정치에 대한 절망과 갈수록 늘어나는 부의 힘에 마음이 부서진 자들이 개인주의와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이뤄 내야 하는 정치적 실천을 '비통한 자들의 정치'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오늘날 비통한 자들의 정치가 실현되어야 할 이유를 근대성에서 비롯된 마음의 상태에서 찾는다.

/박성천기자 skypark@

천만홀릭
K-mingsoon
매주 금요일 밤 9시 30분

경리 이원석 신동엽 김기방 은지원

CHANNEL A